

행하여 몸으로 부딪혀 보아라.

작성일: 2010. 9. 07. (화)

작성자: 장현순 (월명동 형상도예)

*** 선생님 말씀 ***

- 9. 07. 화. 오후 4시경 감람산

(감람산에서 선생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의 정신도 선생님처럼 변치 않고 굳건하게 해달라고

감람산에 갑니다.

올라가니 예수님께서 “너희 선생 위해 기도하자.

깊은 마음을 가져라. 깊은 마음.

물이 계속 계속 솟아오르는 내 자연성전의 약수샘처럼
끓임없는 마음 마르지 않는 마음이 되어라.”하셨습니다.

선생님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중 선생님이 너무나 보고
싶어 “우리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면 영으로
만나잖아요.”하며 보고 싶음을 고백했을 때
선생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나를 위해 기도하느냐.

나 네 기도 들었다.

나를 위해 기도하니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니

너의 영혼이 나를 끌고 너의 마음이 나를 끄는구나.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이 서로 끌리듯

우리 서로 끌리는구나.

사랑아. 사랑하는 자야. 같이하자.

혼자 하면 홀로 외롭고 힘들지만

같이하면 더 빠르고 힘도 덜 들고 외롭고 쓸쓸치 않다.

주님과 늘 같이하고 나와 늘 같이하자.

나를 홀로 두지 말아라.

나를 홀로 두는 시간 가지지 말아라.

더 크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길 내가 바라는 도다.

주님 지혜 받으면 지혜롭고

주님 지식 받으면 푹푹하고 명철하다. 빛이 난다.

다른 자들과 달리 빛난다.

나도 주님 지혜 받고 주님 말씀과 지식으로

내 어린 날부터 크고 자라나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니 내가 말하는 한마디 말도 다르지 않느냐.

주님께 배운 것이고

주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주님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 줄 아느냐.

세상의 것을 놓고 보자면

등근 지구를 뚫어 봉 하나를 세울 정도로 깊고 깊다.

그 깊은 말속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천층만층 많고도 깊다.

한마디 말씀에 세상만사 영계만사 인생만사 다 들어 있고

죽음과 생명까지도 들어 있고

너희들 그토록 원하는 성공도 들어 있고 출세도 들어 있고

예술 문화 최고의 사랑도 다 들어 있다.

그러니 깊이 깨닫고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하노라.

해봐. 행해봐. 몸으로 부딪혀봐.

나도 그렇게 자랐다.

다 실천하였다.

앓아만 있었다면 지금도 앓은뱅이 인생에서 끝났다.

하지만 일어나 행했기 때문에

주님 보실 때 병신이 아니라 모자란 자가 아니라

온전한 인생의 모습인 것이다.

너 정신이상자 이야기 기억나지?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정신이상자다.

섭리만이 우리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이 되는 최고 위치다.

귀한 삶들이다.

그러니 지체 중 어디가 없고

어디가 불편하고 모자란 자 되지 않으려면

주님 말씀 행해봐야 한다.

행하여 깊은 심정 받아라.

행하여 내 말씀 받고 주님 심정 네 것 만들어 보아라.

사랑해서 내가 왔다 간다. 안녕. 사랑해.